

#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Family Life Satisfaction of the Expanding Family, Husbands and Wives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임 정 빈

대학원생 이 종 숙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Associated Prof.; **Jeong Bin Im**

Graduate School Student; **Jong Sook Lee**

###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tendency of family life satisfaction in the period of expanding family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lso, to provide some basic directions for the expanding period and to improve its family life satisfac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family life areas of relations with spouses, self-evaluating scored highest, reflecting the greatest degree of family life satisfaction of both husbands and wives.

2.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family life satisfaction scores. Generally, husband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wives.

3. In satisfaction with areas specific to the family life, husbands were highly satisfied with instrumental areas which were related to role performances, as the head of family. And wives were highly satisfied with areas refer to relations with spouses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y members.

4. Family life satisfaction scores were relatively high when th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of the couple were high. So the variables which related to socio-economics status affected seriously on family life satisfaction of that period.

5. Family life satisfaction degree of the expanding family was getting lower by degree. But it showed that the higher both spouses were satisfied with finance situation and

communication, the higher the general family life satisfaction degree of both spouses would be.

## I. 서 론

가정관리는 인적자원과 물질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과정(through put process)을 거쳐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out put)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활동(장명옥 1981; Nickell, Rice, Tucker 1976)으로서 가족원은 욕구충족을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따라서 가정관리의 성공여부는 가족의 만족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에 체계론적 접근법이 적용된 이래, 투입요소인 가치, 목표와 관리과정인 의사결정양식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만족”에 관한 연구는 가정생활주기와 부부의 결혼만족도 혹은 결혼적응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결혼만족도 혹은 결혼적응과 가정생활주기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최근 10년간격으로 보면, 1970년대 연구의 대부분은, 첫자녀 출생이후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현상이 가정생활 주기의 초기단계동안 지속되다가, 중반기 단계에서 만족도가 다시 떨어지고, 가정 생활주기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980년대의 연구결과 또한, 자녀의 교육이 시작되는 확대초기로부터 만족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며, 그러한 현상이 확대후기까지 지속되다가 자녀가 출가하는 축소기가 되면서 만족도가 다시금 높아지고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때, 1970년대에는, 보다 근대화된 1980년대에도, 자녀가 학동기에 들어서게 되는 확대기 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활의 여러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원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보다 효과적인 가정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주기별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확대기 가정의 부부를

한 단위로 하여 확대기에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확대기의 가정생활 만족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I :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II : 가정생활만족도는 부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III :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생활 만족의 개념

가정생활 혹은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에 “만족”이라는 용어가 적용된 이래 이 ‘만족’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Burr(1979)는, 만족에 대한 정의를 첫째, 인간이 갖는 기대와 실제받는 보상사이의 일치정도라는 견해와 둘째,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않은 현상이라고보는 견해등의 두가지로 분류 하였다. 이와 흡수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복에 대하여, Reseher(1972)는 인간의 행복은 일반적 행복요소가 중요시되며, 그 일반적 행복요소는 인간 상호적 분야라고 전제하고 재산상태,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질, 지위, 존경, 직무만족, 자유, 여가등의 활동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개인적 안녕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충족감 그리고 환경적 요소와의 관계에서 오는 충족감등 세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또한, 한상순(1978)은 가정생활의 행복이란 부부를 비롯한 가족간의 애정은 물론 원만한 가족관계, 경제적 안정 및 자녀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만족과 행복은 모두 욕구가 충족되었을때 오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생활만족의 개념은 이상과 같은 만족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 혹은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임정빈 1988)이라고 정의하였다.

## 2.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

가정에 생활주기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가정생활주기와 결혼만족도 또는 가정생활주기와 결혼적응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1970년대초 Rollins와 Feldman(1970), Schram(1979)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초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첫 자녀 출산후에는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충량과 이효재(1970)는 결혼지속연수가 6년이하인 가정의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 결혼 횟수가 경과함에 따라 만족도는 감소함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와같이, 1970년대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가정생활 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자녀 출생 이후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가정생활주기 초기 단계동안 계속되다가 중반기 단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좀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1980년대 연구에서, Swenson(1981) 등은, 결혼에서의 갈등은 어린이 양육단계에 있을때 가장 높았고 후반기에는 가장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가족주기가 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은숙(1983)은 가정생활주기에서 불매 자녀가 없는 신혼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장기의 10대 자녀를 가진 가족인 경우에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임정빈(1988)의 연구결과에서도, 부인의 연령이 30대인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교육이 시작되는 확대초기로부터 만족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며, 이러한 현상이 확대후기까지 지속되다가 자녀가 출가하는 축소기가 되면서 만족도는 다시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Burr(1979)는 만족과 역할수

행과의 관계로 보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입각하여 다루었다.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 역할수행의 질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역할기대에 대한 일치의 정도가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확대기 가정에 적용시켜 볼때, 확대기에 가정생활 규모가 확대되면서 역할수행의 관계는 복잡하여지나, 그러한 기대되는 만큼의 역할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만족도에 교환이론을 적용시켜 설명하였는데, 가족역할기능에 유효한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져서 만족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즉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간의 역할기능에 유효한 자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가족원들의 만족이 커진다는 것이다. 가정생활주기중 확대기에 처해있는 가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전-단계인 확립기에 비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물리적 정신적 자원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되게 된다. 이때 상승되고 변화하는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만큼의 자원은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된 요구와 유효 자원의 부족'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 결과 가정생활에 대한 가족원의 불만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불만은 가정의 확립기로부터 확대초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점차로 커지게 됨으로, 확대기의 가정생활 만족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확대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정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부부적응에 관심을 두고 활발히 이어져 왔을 뿐, 가정관리의 결과로서 가정생활 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더우기 부부를 대상으로 삼아 가정생활주기별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확대기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를 모두 참여시켜서,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되리라 본다.

## 3. 가정생활 영역과 관련변인

가정생활 만족은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복합

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로 가정생활 만족 정도는 가정생활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관리영역에서의 만족정도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가정생활 영역을 학자에 따라 구분한 것을 보면, Hays와 Stinnet(1971)는, 중년기 부부와 생활만족을 조사하면서, 생활영역을 결혼관계, 건강, 직업, 자녀와의 관계 여가와 사회참여 그리고 자아개념등의 7개영역으로 설정하였다. Burr(1970)는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주부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생활 만족을 재정문제의 처리능력, 사회적 활동 가사작업의 수행, 동료감, 성생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문숙재(1985)는 가정생활의 질이 높으면, 가족들의 만족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사노동, 가족관계, 가정생활등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이러한 요인을 가정생활 만족의 영향변인으로 간주하였다. 임정빈(1988)은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과 가정생활 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에서, 가정생활 만족의 중요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표준일치, 경제적 만족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사노동, 자녀문제, 남편과의 관계와 한국가정의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과의 관계,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만족등의 6가지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가정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주부의 교육정도, 수입, 경제적 지위, 부인의 취업여부, 사회적 관계 그 밖에 부부 상호요인, 자녀요인, 갈등요인등 관계적 요인을 들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부인의 교육정도는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특히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 안정성이 유지되며, 여성의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서병숙, 임정빈 1987; Scanzoni; 이정우 1974). 교육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은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육진(1982), 박태은(1983)등의 연구에서 보면, 수입은 가정생활 만족도와는 일반적으로 정적(正的)관계를 보였으며, 가계 수입이 높은 주부들의 생활만족도가 큰것을 알 수 있었다. 부인의 취업과 가정생활 만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부인의 취업유무와 가정생활 만족과의 관계는 부인의 취업여부보다는 직업의 종류, 취업

동기, 남편의 지지여부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최규련 1984). 취업주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많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또한 가사조력자를 두고 있을때 결혼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정혜정 1985). 자녀가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어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임정빈 1988; 박찬미 1985; Hurley와 Palonen 1967).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Hays등(1971)은 사회적 참여가 많은 주부 일수록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친적과의 유대, 친구관계, 자치활동과의 유대 관계등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주부는 대체로 생활의 만족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Lewis등 1979; 박인덕 1979).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삼아 연령, 교육정도, 직업종류, 가족수, 부인의 직업유무, 월평균 소득과 가정생활주기를 보여주는 말자녀의 연령 그리고 결혼형태, 종교, 주택 형태등의 11가지 변인을 선정하여 이 변인들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가정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48개 문항(남편의 경우는 52개 문항<sup>1)</sup>)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11개 문항을 포함한 총 59개(남편의 경우는 63개문항)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자녀와의 관계 만족, 시대(본가)와의 관계 만족<sup>2)</sup> 경제적인 만족, 생활표준일치에 대한 만족,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만족,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 여가활동에 대

- 1) 남편의 경우는 남편 자신의 직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을 묻는 48개문항이 첨가되어 52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부인의 경우는 시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며 남편의 경우는 아내의 시대에 대한 태도에 만족을 말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인	분류	부인	남편
		%	%
연령 (세)	28~39	49.1	34.7
	40~49	39.8	44.0
	50~	11.1	21.3
	계	100.0	100.0
직업종류	-전문·기술직	15.5	17.7
	-행정관리직		29.2
	-사무직	15.5	20.1
	-판매직		18.2
	-서버서비스직	69.0	8.1
	-기타		6.7
계	100.0	100.0	
가족수 (명)	3	13.5	
	4	56.2	
	5	19.2	
	6~	11.2	
계	100.0		
자녀수 (명)	1	15.0	
	2	61.7	
	3~	23.4	
	계	100.0	
부인의 직업유무	없다	68.0	
	있다	32.0	
	계	100.0	
월평균 소득 (만원)	~ 40	6.6	
	41~ 60	22.3	
	621~ 80	19.4	
	80~100	11.8	
	101~120	8.1	
	124~140	11.8	
	141~	11.8	
계	100.0		
만자녀의 연령	유치원생	5.6	
	국민학생	39.1	
	중·고등학생	30.7	
	대학생	17.7	
	대학졸업후 미혼자녀	7.0	
	계	100.0	

결혼형태	연예	33.3
	중매	44.1
	절충형	22.5
계	100.0	
종교	없다	25.8
	천주교	15.0
	개신교	37.6
	불교	21.6
	계	100.0
주택형태	한옥	10.0
	양옥	26.8
	아파트	46.9
	일반주택 빌라	16.3
	계	100.0
N=432		

한 만족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sup>3)</sup>등 11개 영역에 대해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48개문항(남편의 경우는 52개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만족정도는 5점 Likert방식으로, '정말 그렇다'(매우 만족)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불만)에 1점을 주도록 하였으며, 그 점수를 합산하여 가정생활 만족영역별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를 산출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1988년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부부 50쌍을 대상으로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기초로 본 조사용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총 680부를 한쌍의 부부를 한 단위로 번호를 정해 따로 봉투에 넣어 배부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432부(216쌍)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 3) 직업에 대한 만족 1, 2-1, 2-2를 포함하며 말한다.  
 \*직업에 대한 만족 1: 남편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직업에 대한 만족 2-1: 부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 2-2: 부인이 직업이 없는 경우, 부인이 가정생활만 하는 데에 대한 부부 모두의 만족정도.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자녀가 유치원생(만 5세)부터 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 미혼인 확대기 가정의 부부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 IV. 결과 및 논의

### 1. 가정생활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

가정생활 만족의 전반적인 경향과, 부부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정생활의 내용을 구성하는 11개의 각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점수의 평균과 이들을 합한 전체 가정생활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2>

<표 2>에서, 부부가 모두 만족하는 영역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과 자기평가였으며, 두 사람 모두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취업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부부간의 영역별 만족정도의 차이를 보면, 남편은 특히 자기평가에 있어 부인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부인은 자신이 직업없이 가정생활만 하는데 대하여 남편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영역별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합한 전체만족도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이 부인보다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부인과 남편이 가장 불만족하는 가정생활영역은 취업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를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가정생활에 만족도를 보았다 <표 3>. 취업 주부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보다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와 직업수행에 대한 이중부담이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낮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우기 남편은 부인의 취업·비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사노동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인은, 자신이 취업주부인 경우에, 남편이나 자녀들의 가사노동참여정도가 낮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취업부인의 가정생활만족을 낮게하는 요인이됨을 알 수 있다.

<표 2> 부부의 가정행위 만족도

가정생활영역	성 별	남 편			부 인			T 값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배우자영역 관계 만족	(20점)	16.2	2.59	6.20	14.9	2.99	6~20	4.58*
자녀의 관계 만족	(20점)	14.2	2.63	7.20	14.2	2.66	5~20	0.02
시댁(본가)와의 관계 만족	(20점)	14.4	2.8	6.20	13.8	2.68	7~20	2.36*
경제적인 만족	(20점)	13.1	3.17	5~20	13.5	3.10	5~20	1.29
생활표준에 대한 일치 만족	(20점)	13.3	2.37	6~20	13.0	2.36	5~18	1.39
의소노동에 대한 만족	(20점)	13.	2.61	6~20	14.0	2.66	6~20	4.04*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만족	(20점)	14.6	3.06	6~20	13.5	2.38	8~20	4.18*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20점)	14.8	2.90	4~20	13.5	3.7	4~20	4.36*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	(20점)	15.4	2.17	8~20	14.4	2.37	8~20	4.64*
여가노동에 대한 만족	(20점)	13.6	2.89	6~20	12.7	3.13	6~20	3.04*
직업에 대한 만족 1*	(20점)	11.8	3.57	3~20	—	—	—	—
직업에 대한 만족 2~1*	(20점)	11.8	2.87	2~18	12.6	2.06	6~16	1.68
직업에 대한 만족 2~2*	(20점)	12.2	2.82	5~20	15.3	2.80	5~20	9.17*
전 체*		165.6	18.2	115~210	151.7	17.0	113~194	8.18*

\*p<0.05

3. 가정생활만족 영역들간의 상관관계

(표 4-1 4-2 참조)

가정생활의 각 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과 경제적인 만족( $r=0.51$ )간의 상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기평가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 $r=0.50$ ), 그리고 자기평가와 경제적인 만족( $r=0.47$ ) 등이 서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부인은, 의사소통과 생활표준일치와의 관계( $r=0.60$ )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였으

며, 그 다음이 의사소통과 배우자와의 관계( $r=0.58$ ), 생활표준일치와 배우자와의 관계( $r=0.49$ )의 순이었다. 즉, 남편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면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한 평가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부인은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생활표준일치에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에도 더욱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만족도가 클때, 부인은 부부관계와 의사소통등의 정서적 친밀성에 대한 만족정도가 클때 가

<표 3>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영역	직업유무 성별 생활 만족도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	부인	t 값	남편	부인	t 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20점)		15.8	15.1	1.62	16.2	14.8	4.24**
자녀와의 관계 만족 (20점)		13.9	14.3	-0.79	14.3	14.1	0.55
시댁(본가)와의 관계 만족 (20점)		14.3	13.7	1.21	14.4	13.8	2.02
경제적인 만족 (20점)		12.7	13.0	-0.56	13.3	13.8	-1.23
생활표준 일치에 대한 만족 (20점)		13.1	12.6	1.14	13.7	13.2	0.70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 (20점)		13.3	13.7	-0.94	12.8	14.0	-4.04**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만족 (20점)		14.3	12.9	3.35*	14.7	13.8	2.81*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20점)		14.5	13.6	1.64	14.9	13.4	4.06**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 (20점)		14.7	14.0	1.69	15.7	14.5	4.4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20점)		12.9	12.	1.73	13.9	13.0	2.51
합 계 (200점)		139.2	134.2	1.63	143.5	138.5	2.73

$p < 0.05^*$   $p < .001^{**}$

<표 4-1> 가정생활만족영역별 상관관계(남편의 경우)

가정 생활 만족 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												
2 자녀와의 관계 만족	0.37	—											
3 시댁(본가)와의 관계 만족	0.31	0.18	—										
4 경제적인 만족	0.28	0.34	0.29	—									
5 생활표준에 대한 일치 만족	0.36	0.40	0.27	0.38	—								
6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	0.45	0.38	0.19	0.26	0.34	—							
7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만족	0.25	0.23	0.22	0.08	0.14	0.26	—						
8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0.25	0.18	0.23	0.27	0.24	0.13	0.15	—					
9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	0.32	0.37	0.13	0.47	0.40	0.24	0.12	0.35	—				
10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0.21	0.17	0.18	0.26	0.22	0.11	0.01	0.30	0.30	—			
11 직업에 대한 만족 1	0.22	0.24	0.17	0.51	0.27	0.18	0.09	0.26	0.50	0.03	—		
12 직업에 대한 만족 2~1	0.17	0.06	0.11	0.17	0.06	0.27	0.07	0.20	0.12	0.01	0.33	—	
13 직업에 대한 만족 2~2	0.08	0.19	0.03	0.14	0.12	0.01	0.22	-0.06	-0.06	0.06	0.07	0.99	—

&lt;표 4-2&gt; 가정생활 만족영역별 상관관계(부인의 경우)

가정생활 만족영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										
2	자녀와의 관계 만족	0.32											
3	시댁(본가)와의 관계 만족	0.20	0.01										
4	경제적인 만족	0.38	0.20	0.17									
5	생활표준에 대한 일치 만족	0.49	0.30	0.11	0.47								
6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	0.58	0.30	0.19	0.42	0.60							
7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만족	0.24	0.07	0.06	0.30	0.37	0.33						
8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0.15	0.15	0.10	0.30	0.15	0.12	0.23					
9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	0.37	0.28	0.15	0.41	0.32	0.34	0.19	0.36				
10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0.20	0.15	0.10	0.32	0.33	0.28	0.27	0.25	0.42			
11	직업에 대한 만족 2~1	0.04	0.20	0.09	0.03	0.03	0.03	-0.02	0.10	0.11	0.01		
12	직업에 대한 만족 2~2	0.20	0.01	0.18	0.18	0.18	0.22	1.16	0.05	0.34	0.19	0.20	

&lt;표 5&gt;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가정생활 만족도(전체만족)

변 인	구 분	남 편		부 인	
		평 균	F 비	평 균	F 비
부인의 연령(세)	28~29	167.3		153.8	
	40~49	165.5	2.34	152.3	6.51*
	50~	158.4		140.4	
남편의 연령(세)	28~39	167.9		153.2	
	40~49	167.0	3.93*	153.	3.83*
	50~	159.1		145.7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157.3		143.3	
	고졸 이하	167.9	4.59*	154.8	6.15*
	대졸 이상	165.9		152.5	
남편의 학력	중졸 이하	153.3		137.7	
	고졸 이하	161.2	6.60*	152.5	6.81**
	대졸 이상	165.8		153.3	
부인의 직업 유무	있 다	162.0		134.9	
	없 다	167.0	3.8*	138.5	5.45*
부인의 직업 종류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161.5	1.76	148.4	2.21
	사무직				
	판매직	162.4		148.0	
	서어비스직				
기 타	167.0		153.5		
남편의 직업 종류	전문·기술직	169.4		153.7	
	행정관리직	165.8		152.8	
	사무직	165.0		152.4	
	판매직	163.5	1.14	150.1	0.63
	서어비스직	157.5		146.0	



	기 타	164.3		150.9	
월평균소득(만원)	~40	153.9	5.53***	143.8	2.50*
	41~60	159.2		147.3	
	61~80	160.6		149.4	
	81~100	171.1		155.1	
	101~120	169.9		154.0	
	121~140	166.7		156.7	
	141~	176.7		158.2	
만자녀의 연령	유 치 원 생	165.9	0.87	152.3	1.79
	국 민 학 생	166.3		153.3	
	중 · 고 등 학 생	162.6		157.7	
	대 학 생	161.1		140.7	
	대학졸업후미혼	171.4		152.7	
가족수(명)	3	163.5	0.38	148.5	6.51
	4	165.9		153.0	
	5	177.0		152.0	
	6~	162.9		148.4	
결혼 형태	연 애	163.5	1.30	148.4	3.28*
	중 매	167.6		155.1	
	결 총 형	163.8		150.8	
종 교	없 다	161.5	1.92	148.5	2.07
	천 주 교	169.7		154.3	
	개 신 교	167.2		154.3	
	불 교	163.9		148.5	
주택 형태	한 옥	161.4	1.48	148.3	0.82
	양 옥	164.3		152.8	
	아 파 트	168.1		153.1	
	연립주택및빌라	162.1		149.1	

정생활에 대하여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남편은, 자신의 연령, 부부의 학력, 부인의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부인은, 부부의 연령, 학력, 자신의 취업여부, 월평균소득과 결혼형태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부인의 연령은 30대인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서, 가정생활주기가 확대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도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의 만족점수가 높아졌다. 이것은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위세가 크고 소득도 높아서 학력·직업·소득의 세 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정생활만족도를 높히게 된다는 임정빈(1988)의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부인의 직업유무는,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부인이 직업이 없는 경우에 부부의 만족도는 높았다. 월평균 소득도 가정생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Scanzoni(1975)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부인과 남편의 호혜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인과 남편의 가정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주기단계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영역별 만족도

〈표 6〉은 각 가정생활 내용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하여 F검증을 한 결과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만족정도는 연령, 종교등 가정생활주기와 관련된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생활주기중 확대 초기인 30대에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확대 후기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시기가 오면 만족도가 높아져서 확대기의 가정생활 만족도 또한 확대초기로 부터 확대후기에 이르기까지 U자 형태의 곡선을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학력에 따른 부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남편은 직업이 전문 기술직이며, 수입이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졌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은, 남편이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부부의 학력이 고졸이상일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던 자녀수와 부인의 취업여부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수가 많고, 취업주부인 경우에 자녀와의 접촉기회가 적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되어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임정빈(1988), 박찬미(1985) 등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이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모친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직업을 가질 경우, 모성역할의 불충실함에 대한 자책감과 아울러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정혜정 1985).

시대(본가)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시대(본가)과의 관계가, 시대과 부인의 중재적 역할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남편의 학력이 높

을수록 직업 위세가 크고 수입 또한 많아져 가정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남편이 합리적인 처신을 하게 됨으로서 시대(본가)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인 만족은, 원평균소득, 학력, 직업종류 등 사회·경제적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많을때 남편의 직업이 전문, 기술직일때 부부의 경제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만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일 경우, 부부의 경제적 만족도는 낮아졌다. 이는, 교환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즉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게 될수록 자녀의 교육비가 전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나, 수입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경제적인 만족도는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표준일치에 대한 만족도는, 부인의 경우, 부부의 연령이 적고, 자신이 직업없이 가정생활만 할 경우에, 남편은 부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생활표준일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이것은 가정생활주기와 관련되어, 확대 초기(30대)에는 만족도가 높으나 확대 후기로 가면서 만족도는 낮아지며, 특히, 생활표준일치,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의사소통, 가사노동등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임정빈 1988)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은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부부간과 가족원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확대후기로 갈수록 적어지고 대화유형도 덜 개방적이었다는 연구결과(이기숙 1988)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가사노동참여 대한 만족은,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부인의 경우는 전업부인인 경우에 비해 가족원들의 가사노동참여 정도에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부인의 취업시 겪게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가족원의 가사노동 조력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은, 부인의 경우 자신과 남편의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으며, 가족수와 자녀수가 적고, 만자녀의 연령이 많을때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

< 표 6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각 영역별 민족도

민족영역	배우자 민족		자녀에 민족		시댁(본가)에 민족		경제민족		생활보조금일치		의사소통		가사노동		건강상태		자기평가		여가활동		직업에 민족 1		직업에 민족 2-1		직업에 민족 2-2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성 별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부인의 연령 (세)	28~39	14.5	13.6	14.2	14.5	13.6	13.0	13.6	13.7	13.3	13.4	14.4	13.6	15.0	14.0	15.6	14.7	13.5	12.6	11.6	11.9	13.0	11.9	15.0	12.1	10.6	10.6	15.1							
	40~49	14.5	14.0	14.1	14.3	14.5	14.0	13.3	13.8	12.8	12.8	14.0	15.0	13.6	14.8	13.6	15.3	14.3	13.6	13.0	12.0	12.1	10.6	10.6	15.1	9.3	12.2	11.4	14.6						
	50~	13.5	13.7	13.5	13.4	13.5	13.7	12.6	12.0	13.0	12.4	11.8	12.3	13.7	12.8	13.8	11.0	14.8	13.3	13.9	11.5	1.80	4.62	1.53	0.14	11.6	12.2	11.9	14.9						
	F 값	2.48	7.26	0.63	1.06	1.31	0.49	0.52	3.10	2.97	2.24	3.50	6.54	1.80	1.23	1.84	7.99	1.44	3.53	0.23	0.45	0.32	11.7	11.6	12.2	11.9	14.9	12.2	12.3	11.6	14.9				
남편의 연령 (세)	28~39	16.5	15.7	14.3	14.2	14.4	13.5	13.0	13.5	13.7	13.2	13.4	14.4	14.5	13.7	15.3	14.1	15.6	14.5	13.4	12.2	12.0	12.2	12.3	11.6	14.9	11.2	10.9	11.5	9.8	15.3				
	40~49	16.2	15.0	14.2	14.3	14.5	13.8	13.4	13.9	13.4	13.2	13.0	14.3	14.8	13.4	14.6	13.7	15.5	14.5	13.6	13.1	11.2	10.9	11.5	9.8	15.3	0.67	0.25	3.01	0.16					
	50~	15.5	13.6	13.5	13.8	14.2	14.1	12.7	12.6	12.3	12.3	12.7	14.1	13.4	14.3	12.0	14.6	13.9	13.7	12.6	10.1	10.9	12.4	12.6	14.4	13.4	11.1	11.6	15.0	11.3	12.5	10.5	15.4		
	F 값	2.42	7.42	6.11	1.55	0.47	0.44	5.65	1.76	1.38	2.34	2.43	2.10	0.49	0.40	4.30	6.80	1.40	10.60	0.96	0.51	4.37	10.3	10.8	12.7	12.5	12.4	11.8	12.3	11.5	15.4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15.1	13.5	12.8	13.5	14.0	13.8	11.6	12.7	12.3	12.1	13.3	15.0	13.3	13.7	11.7	14.9	13.1	13.5	12.2	10.1	10.9	12.4	12.6	14.4	13.4	11.1	11.6	15.0	11.3	12.5	10.5	15.4		
	고졸 이하	16.3	15.2	14.0	14.4	14.5	13.5	13.7	13.3	13.2	13.2	14.3	14.1	13.7	15.3	14.0	15.6	15.1	13.9	12.8	12.3	11.3	12.5	10.5	15.4	2.98	1.29	2.07	0.58	10.8	12.7	12.5	12.4		
	대졸 이상	3.90	3.17	4.02	0.63	5.81	3.49	7.03	1.98	1.13	2.40	4.06	4.37	0.46	0.53	1.85	3.42	3.82	9.23	1.11	8.2	9.08	0.23	0.16	0.52	1.54	10.6	12.4	11.5	15.4	11.8	12.3	11.5	15.4	
	F 값	15.8	14.0	14.9	13.6	14.5	13.4	12.3	13.5	13.4	12.6	13.2	14.1	14.1	13.4	14.3	13.4	14.8	13.8	12.4	13.7	11.1	10.6	12.4	11.5	15.4	11.6	12.3	11.5	15.4	11.9	11.8	13.2	11.4	14.7
남편의 학력	3	16.2	15.2	14.0	14.3	13.8	13.2	13.5	13.3	13.2	13.2	14.0	14.1	13.7	15.0	13.5	14.7	14.6	14.1	12.5	9.9	11.8	12.3	11.5	15.4	12.3	11.8	12.0	11.1	15.1	0.23	0.16	0.52	1.54	
	4	16.0	14.4	13.9	14.2	14.3	14.0	13.9	14.2	13.6	13.0	14.0	13.6	13.0	15.0	13.0	15.6	14.5	14.0	13.9	12.8	11.1	10.6	12.4	11.5	15.4	11.6	12.3	11.5	15.4	11.9	11.8	13.2	11.4	14.7
	5	16.3	15.3	13.9	14.1	14.1	13.8	12.5	12.3	12.9	12.3	13.3	13.9	14.8	13.1	14.3	12.1	14.8	14.6	13.8	13.7	10.9	11.7	10.9	11.1	15.4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F 값	16.1	14.0	13.2	14.2	13.3	13.6	11.7	12.7	13.4	13.4	12.8	13.8	14.3	13.2	13.8	13.2	15.1	13.7	13.1	12.1	11.8	10.6	12.4	11.5	15.4	11.6	12.3	11.5	15.4	11.9	11.8	13.2	11.4	14.7
가족수 (명)	6~	16.5	15.0	14.7	14.0	14.5	13.8	13.5	13.2	13.2	14.2	14.7	13.5	15.1	13.7	15.7	14.4	13.7	13.8	12.2	11.4	14.8	14.7	10.9	11.1	15.4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F 값	15.4	14.8	14.2	14.3	14.7	13.6	12.4	12.7	12.6	12.9	13.5	13.8	14.4	13.4	14.3	13.4	14.4	14.4	13.6	13.9	11.4	11.7	10.9	11.1	15.4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한	1.86	0.74	2.19	0.18	1.01	0.36	2.42	1.87	0.73	0.75	0.99	0.59	0.93	0.30	1.38	0.24	3.03	0.53	0.25	0.19	5.39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11.8	10.6	12.4	11.5	15.4
	F 값	15.8	15.0	13.2	14.3	14.5	14.1	13.3	13.8	13.4	13.0	12.5	13.9	14.8	13.8	14.9	13.3	15.5	14.4	13.5	13.5	11.0	11.8	12.3	11.5	15.4	11.6	12.3	11.5	15.4	11.9	11.8	13.2	11.4	14.7
주택 형태	아파트	16.5	15.0	14.7	14.0	14.5	13.8	13.5	13.2	13.2	14.2	14.7	13.5	15.1	13.7	15.7	14.4	13.7	13.8	12.2	11.4	14.8	14.7	10.9	11.1	15.4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연립주택	15.4	14.8	14.2	14.3	14.7	13.6	12.4	12.7	12.6	12.9	13.5	13.8	14.4	13.4	14.3	13.4	14.4	14.4	13.6	13.9	11.4	11.7	10.9	11.1	15.4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민족 1	1.86	0.74	2.19	0.18	1.01	0.36	2.42	1.87	0.73	0.75	0.99	0.59	0.93	0.30	1.38	0.24	3.03	0.53	0.25	0.19	5.39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11.8	10.6	12.4	11.5	15.4
	F 값	15.4	14.8	14.2	14.3	14.7	13.6	12.4	12.7	12.6	12.9	13.5	13.8	14.4	13.4	14.3	13.4	14.4	14.4	13.6	13.9	11.4	11.7	10.9	11.1	15.4	0.28	1.90	0.69	0.62	10.6	12.4	11.5	15.4	

유치원생	16.3	15.4	14.3	14.0	14.6	13.6	12.9	13.5	13.4	12.9	13.3	14.1	14.2	13.4	15.2	14.3	15.3	14.5	13.2	12.4	11.5	12.1	12.3	11.4	14.7
국민학생	16.0	14.8	14.1	14.6	14.4	13.7	13.9	13.2	13.1	12.7	14.2	15.0	13.5	14.3	13.5	15.8	14.4	13.5	13.0	12.3	12.4	12.0	11.0	15.3	
중·고등학교생	15.8	14.6	13.4	14.7	14.1	14.0	12.8	13.7	13.1	13.3	12.5	13.7	14.7	13.6	15.1	12.7	15.0	14.5	13.8	12.7	11.5	11.4	11.0	10.7	14.7
대학생	16.1	12.5	14.2	12.5	13.6	14.4	12.9	11.9	12.8	12.5	12.1	12.4	13.5	13.0	13.1	10.3	14.6	13.1	14.6	13.3	11.3	7.8	12.0	12.8	15.6
대졸후 미혼	16.5	15.4	14.3	13.8	14.8	14.1	13.2	13.1	13.9	13.5	13.9	14.5	15.6	14.1	15.2	13.9	16.2	13.0	14.5	11.8	11.3	10.4	13.0	12.9	15.7
F 값	0.37	3.33	0.80	2.28	0.55	0.40	0.80	1.33	0.56	0.52	1.60	1.70	1.43	0.37	4.15	1.88	1.26	1.34	0.71	0.53	2.12	0.37	0.88	0.39	
부인의 직업	15.9	15.2	13.7	14.3	14.3	13.7	12.7	13.0	13.1	12.6	13.3	13.7	14.3	12.9	14.5	13.6	14.7	14.0	6.8	12.0	12.1				
유 무	16.2	14.8	14.3	14.1	14.4	13.8	13.3	13.8	13.4	13.2	12.8	14.1	14.6	13.8	14.9	13.4	15.7	14.5	14.5	13.0	10.7				
F 값	0.71	0.68	2.18	0.19	0.13	0.12	2.19	3.62	0.67	2.62	1.42	0.77	0.32	0.77	0.12	11.2	2.55	5.4	4.68	6.92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16.0	15.3	13.0	14.4	14.3	13.3	12.5	12.8	13.5	13.1	13.3	13.8	14.2	13.0	14.2	14.0	14.7	13.8	12.8	11.7	10.4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15.7	15.0	14.0	14.3	14.2	12.8	13.0	12.5	12.1	13.2	13.5	14.4	13.0	14.9	13.8	14.6	14.2	12.9	12.4	11.1					
기타	16.2	14.8	14.3	14.1	14.4	13.8	13.3	13.8	13.4	13.2	12.8	13.5	14.1	13.8	14.9	13.8	15.7	14.5	13.9	13.0	11.1				
F 값	0.54	0.48	1.63	0.17	0.04	0.95	1.14	1.50	2.17	2.84	0.55	0.61	0.22	2.57	0.87	0.43	5.70	1.34	2.94	2.47	3.80				
전문·기술직	16.3	15.2	14.3	14.4	14.6	13.8	14.3	14.5	13.7	13.3	14.4	14.5	13.1	14.4	12.7	15.8	14.5	13.6	12.5	13.3	10.6	13.4	11.7	15.7	
행정·관리직	16.2	15.3	14.4	14.3	14.3	13.5	13.1	13.3	13.4	12.1	12.9	14.0	14.5	13.5	14.3	13.7	15.6	14.6	13.3	13.1	12.3	13.1	12.8	11.2	15.3
사무직	16.0	14.6	14.1	14.0	14.8	14.0	12.7	13.2	13.1	13.1	14.0	14.8	13.7	15.3	14.0	15.1	14.1	13.2	12.7	11.2	12.0	11.9	11.1	15.5	
판매직	16.0	15.0	13.3	14.1	14.6	14.2	12.9	13.5	12.9	12.6	12.7	13.6	14.3	13.4	15.8	13.7	15.3	14.4	14.3	12.0	10.5	11.7	10.9	10.2	14.4
서비스직	15.5	14.3	12.0	13.7	13.5	13.0	11.8	13.4	12.6	12.2	13.0	13.4	12.8	14.8	13.1	14.6	14.5	13.2	12.2	10.2	12.1	13.4	11.1	13.9	
기 타	16.2	14.0	13.9	14.6	12.6	14.3	12.9	13.5	14.1	12.6	14.3	15.2	14.6	13.4	12.8	15.2	13.4	13.5	13.1	9.9	8.6	11.2	14.7	13.1	
F 값	0.38	0.82	2.07	0.32	1.62	1.10	1.76	1.02	0.92	1.97	0.27	0.61	0.22	1.39	2.27	0.99	1.09	0.75	0.73	4.24	1.84	1.85	1.12	1.33	
없	15.3	14.4	13.7	13.9	14.4	13.7	12.8	13.3	13.3	13.1	12.6	14.2	14.8	13.0	14.5	13.1	15.0	13.8	13.2	12.2	10.9	10.9	12.1	10.8	15.1
친 주 교	16.1	14.8	14.3	13.8	15.1	14.0	13.8	14.3	13.3	12.9	13.3	13.9	14.7	13.6	15.5	14.6	16.0	14.4	14.3	13.7	12.6	11.6	11.4	10.5	14.8
개 신 교	16.1	15.7	14.3	13.5	14.3	13.7	13.1	13.6	13.4	13.1	13.0	14.1	14.7	13.6	14.8	13.6	15.4	15.0	13.3	12.9	12.0	12.0	11.9	12.2	15.0
불 교	16.0	13.0	14.0	14.2	14.1	14.0	13.2	13.1	13.1	12.5	12.9	13.5	13.6	13.7	14.5	12.8	15.4	14.0	13.8	12.1	11.5	12.8	13.1	10.8	15.1
F 값	2.88	3.76	0.58	0.75	0.83	0.25	0.66	1.18	0.26	1.12	0.51	0.63	1.38	1.01	0.99	2.15	1.30	3.53	1.42	2.36	1.80	0.09	0.56	1.45	0.07

월 평균소득 (만원)	~40	14.2	13.7	13.1	13.4	14.1	13.8	10.0	11.6	12.2	11.9	12.0	13.4	14.4	14.1	14.0	12.7	14.3	13.1	12.9	12.0	9.7	12.3	14.7	13.2	13.3	
	41~60	16.2	14.4	13.7	13.5	13.2	11.4	12.4	13.4	12.9	12.7	14.0	14.3	13.4	14.3	13.5	14.7	13.9	13.6	12.3	9.7	10.1	11.7	12.3	14.8		
	61~80	15.8	15.1	14.0	14.3	14.3	14.0	12.4	12.4	12.5	12.7	12.7	13.7	14.6	13.1	14.1	13.1	14.9	14.3	12.8	12.3	10.9	12.2	11.0	11.4	14.8	
	81~100	16.8	15.6	14.5	14.4	14.9	14.2	14.4	14.0	13.6	13.3	13.2	14.1	14.8	13.7	15.2	13.6	15.9	14.4	13.3	13.8	13.5	12.0	12.8	10.6	14.8	
	101~120	16.5	15.4	14.0	14.6	15.0	14.0	13.8	14.3	13.6	13.4	13.2	14.2	14.4	13.9	15.6	13.8	16.0	14.7	14.0	11.6	12.8	10.9	10.9	10.6	15.3	
	121~140	15.5	15.1	14.5	14.0	14.1	13.4	15.1	16.0	13.8	13.2	13.2	14.5	14.3	13.1	14.0	15.0	16.1	15.2	14.2	12.6	12.2	12.8	13.3	8.5	15.6	
	141~	16.6	15.0	14.5	14.4	15.2	13.8	15.3	15.5	13.8	13.6	13.8	14.1	14.9	13.6	16.1	13.2	16.3	15.2	14.6	13.7	13.4	14.1	14.0	11.2	17.1	
	F 값	2.24	1.14	0.72	0.65	1.68	0.68	12.25	8.00	2.03	1.22	0.99	0.39	0.16	0.72	4.01	3.73	1.95	1.53	2.17	7.59	1.72	2.19	1.72	1.63		
	결혼 형태	연애	15.7	14.2	13.8	13.9	14.4	14.1	12.8	12.9	13.1	12.6	12.5	13.2	14.5	13.4	14.6	13.4	15.2	13.0	13.7	12.4	11.7	10.6	11.5	11.6	15.1
		중매	10.5	15.5	14.4	14.5	14.5	13.6	13.4	13.9	13.5	13.4	13.4	14.8	14.4	13.6	14.8	13.8	15.6	14.7	13.5	12.1	11.9	12.2	12.4	11.3	15.1
절충형		16.0	14.8	13.8	14.0	14.4	13.8	13.2	13.7	13.1	13.0	12.8	13.5	14.8	13.4	14.8	13.3	15.3	14.6	13.4	12.8	11.3	11.8	12.7	10.7	14.8	
F 값		2.13	4.18	1.27	1.23	0.03	0.55	0.73	2.24	0.75	2.16	2.81	8.71	0.25	0.20	0.10	0.43	0.70	3.12	0.23	0.49	0.45	1.22	0.85	0.52	0.09	
자녀 수	1	15.7	14.3	14.8	13.8	14.6	13.8	12.5	13.8	13.6	13.0	13.2	14.2	14.0	13.3	14.3	13.5	14.8	14.0	12.4	12.7	11.3	11.5	11.3	12.4	15.3	
	2	16.2	15.2	14.0	14.4	14.3	13.6	13.2	13.5	13.4	13.2	12.9	14.0	14.8	13.8	14.9	14.1	15.6	14.5	13.6	12.7	11.7	12.0	12.1	11.3	14.8	
	3~	16.0	14.5	13.7	13.9	14.5	14.2	13.4	13.5	13.0	12.5	12.9	13.7	14.1	13.0	14.6	12.1	15.0	14.4	14.1	12.8	12.0	11.1	12.6	10.7	15.6	
	F 값	0.43	1.54	1.50	1.13	0.18	0.76	0.64	0.12	0.75	1.62	0.75	0.43	1.52	2.45	0.58	6.46	2.77	0.56	3.45	0.01	0.38	0.39	0.61	0.98	0.68	

P < .05    \*\*\* P < .001

타났고, 남편은, 부인의 학력이 높고 자신의 직업종류가 전문기술직일때, 월평균 소득이 많을때, 보다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에 처해있는 확대기 가정의 부부에게 가정생활만족에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려고 추측되는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은 남편의 경우에 부인의 경우보다 여러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남편의 경우에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으며, 부인이 전집주부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다. 흥미있는 것은 부인은, 자신이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간에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점수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편은 부인이 전집주부일때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인 역할구조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Scanzoni 1975; 서동인 1985)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편은 부인이 취업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인 가족의 생계부양역할을 충족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는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부부모두 취업주부인 경우에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족되는 시간을 자신의 여가활동시간으로 대체해야 함으로 자신의 여가활동과 여가시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이 자신의 직업 및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사회경제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직업이 전문적인 경우에 판매서어비스직인 경우보다 남편의 만족도는 낮아졌는데, 이것은 Blood(1962)의 학력과 수입이 높은 계층에서는 부인이 절박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함으로서 생기기되는 갈등이 남편의 불만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남편의 직업에 만족도는 부인의 취업유무보다는 취업동기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인

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부인 자신의 연령이 30대일 경우 가장 높은 만족도는 보였으며, 40대일때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이것은 부인의 연령이 30대인 경우에는 부인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직업의 종류가 전문적인 경우가 많아 취업동기가 자발적이고 직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직업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학력이 고졸이하이며 부인의 직업종류가 판매, 서어비스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등이 커져 부인의 취업동기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의 직업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므로써, 확대기 가정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확대기부분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여러 문헌에서도 나타나나 확대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정생활 만족도를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나누어 보았을때, 남편의 경우는 수단적 영역에서, 부인은 정서적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남편에게는 직업상의 만족이, 부인은 가족관계에서의 만족이 확대기의 가정생활 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생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부인의 시댁과의 관계, 가사노동 참여, 건강상태, 자기평가, 여가활동에 대하여 부인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생활 만족은 부부 모두가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으며, 동시에 부인이 전집주부이고 월평균소득이 높을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기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의 취업이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로 볼때, 취업주부의 이중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원들 각자에 적합한 가사노동을 분담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주부 자신의 확고한 가정관리 철학과 직업의식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관리 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둘째로,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난 확대후기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금전관리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부부상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본 연구가 확대기의 가정생활 만족도 실태과악과 영향변인을 찾아보고자한 시도는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편의 응답지를 부인을 통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다 객관성을 갖는 표집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가정생활의 내용중 확대기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보다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경동 : 現代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79.  
 김명자 :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김은숙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김혜선 :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문숙재, 정은숙 : 도시가치의 생화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985, 149-167.  
 박경자 :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박영옥 :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 가정관리학회, 5(1).  
 박태은 :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 1(2), 1983.

박찬미 : 도시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론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서동인 : 취업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서병숙, 임정빈 :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1), 1978, 51-70.  
 이기숙 :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 적응의 변화,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17, 1984, 601-617.  
 가족주기적 측면에서 본 중년기 가족의 문제,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12, 1982, 455-480.  
 이옥진 :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 변인에 관한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장명옥 : 가정관리학, 서울 : 교문사, 1981.  
 정혜정 :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최규련 :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22(2) : 1984, 91-102  
 한상순 :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족의 행복도와의 관계, 연구보고, 제 2 집,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78, 5-38  
 Burr, W.R., G.K. Leigh, R.D. Dag, & J.: Constantine Symbolic Interaction &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Ed. Burr, W.R., Hill, R., Nye, F. I., & Reiss, E. L.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66-78.  
 Hays, Maggie Parks & Stinnett Nick: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1971.  
 Hurley, John R. & Palonen, Dona P: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Density Among University student Parent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67, 483-484.  
 Lewis, Robert A. & Graham B. Spanier: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Hill R., Nye, F.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Free Press, 1979, 268-293.  
 Rollins, Boyd C. & Harold Feldma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 32, No. 1, 1970, 20-27.  
 Scharam, K. Weinman,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critique & Propos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1, No. 1, 1979, 7-13.  
 Shram, Rosalyn W.: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Critique and Proposa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 7-12.  
Swenson, C. H., R. W. Eskew, & K.A. Kohlhepp:  
Stage of Family Life Cycle, Ego Development, &

the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4,  
1981, 841-853.